

수출 회복세... 지역 경제 '활기'

기아차 광주공장·금호타이어·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수출 탄력
거리두기 완화... 외식업·웨딩업 등 주요 상권 매출 점차 늘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지역 경제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해외 수출길이 막히면서 섀도우를 반복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가 뚜렷한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수출에도 탄력이 붙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그동안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은 주요 상권도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양새다.

다만 해외에서 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 한동안 잠잠하던 지역 사회 감염 사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28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과 수출에 타격을 입은 올해 2분기와 비교해 3분기 기아차 광주공장의 전체 생산량은 32.8% 증가했고, 수출은 70.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 주력 차종인 스포티지는 전 분기 대비 96.2% 수출이 증가했으며, 쏘울 역시 6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셀토스와 봉고3도 각각 53.2%, 83.7% 증가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에 진출한 국내 부품업체에서 공급하는 와이어링 부품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군수리인을 제외한 전 공장이 이틀간 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4월부터 7월까지 광주공장의 수출

주력시장인 북미와 유럽, 남미 등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현지 판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이 급감, 조업과 휴가를 반복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광주와 곡성에 공장을 둔 금호타이어에도 '수출 훈풍'이 불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총 생산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는다는 점에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광주본부세관의 '9월 광주-전남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달 광주지역 타이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5%나 증가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국내외 완성차 업체가 휴무를 반복하면서 신차용 타이어 공급이 감소하고, 교체용 타이어 수요 역시 줄어 실적부진을 면치 못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54억원(-7.6%) 감소한 것은 물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가 법원에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회사 운영자금 통장이 한때 압류되는 등 극심한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수출에 회복·개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시 마이너스를 벗어나는 등 경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엄 가전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수출 성장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전제품 수요가 늘어 수출 증가라는 '호재'를 누렸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시장의 생산·판매를 담당하던 삼성의 멕시코 공장이 코로나19로 가동을 중단하는 '셧다운' 현상이 반복되자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국내 공장인 광주사업장으로 그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광주지역의 가전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24.4% 증가했던 것에 비해 9월에는 전년 대비 59.3%로 확대됐다. 그 중에서도 냉장고 수출이 72.1%나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가전 수출 증대를 이끌었다는 게 광주본부세관의 설명이다.

광주지역 주요 산업계의 수출 증가에 이어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외식업계와 웨딩업계를 비롯한 지역 주요 상권도 점차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광주지역 주요 유통매장은 방역대응단계 완화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했고, 운영이 중단됐던 뷔페와 음식점, 웨딩홀 등도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서 잔뜩 움츠러들었던 지역 경제가 점차 기지개를 펴고 있다.

광주 경제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최근 주요 산업계의 수출이 성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회복하는 등 지역 경제가 오랜만에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주요 현안·국비 확보 위해 적극 협력"

광주 국회의원·광주시, 서울서 예산정책간담회

광주시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지역 주요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에 지역구를 둔 윤영덕·이병훈·송갑석·양향자·조오섭·이형석·이우민·민형배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광주지역에 기반을 둔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지역 현안과 국비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번 예산정책간담회는 5·18 특별법 개정 등 광주시 현안 8건과 문화·경제·R&D 사업 등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신규 또는 증액이 필요한 24건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주요현안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제자유구역 첨단 기술·제품 및 중점유치업종 법인세 감면 등 8건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또 내년도 국비사업 국회확보의 시작됨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과 광주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RE100구현 에너지 AI통합관제 구축사업, 데이터기반 디지털페어 그린제조플랫폼 구축, AI학습용 데이터셋 개발사업, 아시아 예술인재양성 거점공간 조성,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확장 등 24건 1686억원의 사업비가 추가·증액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건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 속에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안정·경제 반등 이뤄야 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달라"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과 '경제 반등'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순위를 뒀다"며 해당 정책

을 소개하고 기업의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000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000억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5·18 시민군 증언따라 옛 도청 복원 ▶7면

김장, 늦게 할수록 저렴하다 ▶14면

신 팔도명물-담양 대나무발 ▶22면

함께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쁘고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라임-옴티머스 사태" 및 추미에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등이 정국의 뇌관으로 꼽히는 상황임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는 발언 외에는 별도로 검찰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언급 비중도 작아졌다. 문 대통령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평화체제의 질실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GLA & The new GLB #UrbanAdventure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16(수영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603(수운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A 250 4MATIC (배기량: 2000cc, 엔진: 2.0L, 출력: 184마력, 0-100km/h: 7.9초, 최고속도: 200km/h)
GLB 220 (배기량: 2000cc, 엔진: 2.0L, 출력: 184마력, 0-100km/h: 7.9초, 최고속도: 200km/h)
GLB 250 4MATIC (배기량: 2000cc, 엔진: 2.0L, 출력: 225마력, 0-100km/h: 7.9초, 최고속도: 200km/h)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